“고속 성장에 걸맞게 ESG 경영 펼치는 한 해 만들겠다”

창립 40주년 해양에너지 김형순 대표

광주시 전역·전남 8개 시·군에 공급…고객 수 전국 10위
도시가스 사업 안정성장 유지 속 미래 에너지산업도 박차

광주·전남 81만50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1982년 5월 광주에서 출발한 뒤 전국에서는 군 단위 첫 가스공급을 2002년 화순에서 시작하며 해양에너지는 전국 도시가스 고객 수 10위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해양에너지는 고려시대 전남 일대를 지칭한 해양(海陽)을 사명에 담아 광주·전남 지역기반을 확실히 했다.

해양에너지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권역은 광주시 전역과 전남 8개 시·군으로 늘었다.

해양에너지가 가스를 전하는 배관 길이는 이달 현재 2434㎞로, 20년 전(513㎞)의 5배 수준으로 확장했다.

지난 31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해양에너지 본사에서 만난 김형순 대표는 “해양에너지가 걸어온 40년의 세월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이룩한 성장에 걸맞은 ESG 경영을 펼치는 올 한 해를 만들 생각”이라며 “도시가스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미래 에너지산업에 대한 전략을 촘촘히 세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며 “‘2040 탄소중립’(Net Zero)과 지역사회공헌 강화 등 해양에너지의 중장기 목표를 이루는 데 주주사인 맥쿼리가 적극적인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공학도’ 김형순 대표는 GS칼텍스 생산공장장 등으로 활동한 뒤 지난 2017년부터 해양에너지 CEO(최고경영자)를 역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대학 출신 처음으로 ‘한국화학공학회’ 52대 회장에 선임돼 관련 학계와 산업계에서 위신을 인정받았다.

올해 6년째 해양에너지 대표로 일하고 있는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직접 마련한 10장짜리 프리젠테이션을 펼쳐 경영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안전’과 ‘도전’에서의 성과를 해양에너지 40년사에서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안전은 해양이 꼽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광주 99.95%’라는 전국 최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달성하면서 무사고 7900여 일을 기록한 건 우리 회사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오늘도 168명의 안전관리원과 304명의 고객센터 근무자, 180명의 시공업체 근무자는 최첨단 관제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1만5000세대 넘는 도시가스 이용 고객과 925명에 달하는 시민 모니터 요원들도 해양에너지의 선도적 안전관리의 주인공입니다.”

지난 2019년 ‘해양도시가스’에서 새 이름을 얻은 해양에너지는 ‘필(必) 환경 종합에너지 기업’의 됨됨이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길을 걸어왔다.

기존 에너지산업의 한계를 극복할 연료전지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친환경 가스냉난방 기기(GHP) 보급에 뛰어들며 수요 창출에도 도전 정신을 아끼지 않았다.

전국 최초로 천연가스(CNG) 수소 융복합 충전소를 설치하며 수소산업 진출의 신호탄을 쏘기도 했다.

해양에너지의 사업 다각화에는 최근 구축한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T) 플랫폼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에너지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 IT 투자를 단행하며 공급 문의와 계약, 설계, 공사, 시설 유지·보수 등 가스공급 모든 업무의 자동화·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에너지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도시가스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이룰 ‘5년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

단기 전략에는 전남 공급망 확장과 공급비용 최적화, 업무시스템의 IT 고도화, 지속 가능한 기업문화와 건강한 노사관계 형성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 전략은 에너지산업 변화와 전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췄다.

수소 공급을 위한 배관·장비·자산 투자를 과감히 단행하며 탈석탄 추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자로서 가교 구실에 충실해지자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에너지의 중·장기 전략에는 모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경영’이 핵심이다.

“해양에너지는 ‘지속가능위원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탄생시킨 ‘ESG위원회’를 지난해 신설했습니다. 저희 경영진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지난달까지 4차 회의를 열며 회사 발전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5억원 상당을 사회 환원하는 해양에너지는 올해 시민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ESG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 도심을 걸으며 해양에너지 모바일 앱을 통해 기부하고 도심 숲도 가꾸는 ‘희망 한걸음, 행복한 동행’ 캠페인이 다음 달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글=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수출 기업 ‘고환율 효과’ 없다

제조업체 경영 애로 ‘원자재값 상승’ 42.1%…비제조업체, 인력난·인건비 상승 25.2%

한은, 5월 585곳 경기 조사

광주·전남 제조업체들은 지난달 원화 약세(고환율)가 이어졌음에도 수출 부진에 대한 경영애로가 전달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발표한 ‘5월 광주·전남 기업경기조사 결과’ 자료에 담겼다.

조사는 지역 내 종사자 수 5인 이상 제조와 비제조업체 585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18일까지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42.1%)을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은 응답률은 전달에도 42.8%를 기록하며 가장 컸다.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이 16.1%로 뒤를 이었고 ‘불확실한 경제상황’ 9.9%, ‘내수 부진’ 6.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부진’ 응답률은 5.4%로, 전달(3.0%)보다 2.4%포인트 증가했다.

지역 비제조업체들의 경우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이 25.2%에 달하며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전달 13.4%에서 18.2%로, 4.8%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경쟁 심화 12.5%, 불확실한 경제 상황 8.9%, 내수 부진 8.8%, 자금 부족 8.6%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5월 광주전남 제조업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78로 전월과 비교해 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76으로 하락한 뒤 70대선에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등 제자리걸음이다.

전국 제조업 업황BSI 86과 비교해도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기준치(100) 이상이면 긍정 응답 업체 수가 부정 응답 업체 수보다 많고, 이하는 그 반대다.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2020년 5월 43으로 바닥을 찍었던 경기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말 78로 마감했다.

제조업 매출BSI는 100으로 전월보다 4포인트, 다음 달 매출전망BSI도 101로 각각 2포인트 올랐다.

제조업 신규수주BSI는 95로 전월 대비 6포인트, 다음 달 신규수주전망BSI는 96으로 각각 7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업황BSI는 81로 전월 대비 6포인트, 다음 달 업황전망BSI(82)는 전달과 비교해 각각 1포인트 올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400억 규모 ‘중기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총 4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매출채권 팩토링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정책기관이 인수해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상환의무가 있다. 이에 구매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 대출 상환을 요구해 판매기업이 연쇄부도 위험을 떠안는 문제가 있다.

중기부는 판매중소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금융’을 올해 4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을 통해 매출채권을 취득한 신기술사업자로, 구매기업과 최근 6개월 동안 2회 이상의 거래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대상 채권은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에 따른 상거래로 발생한 1000만원 이상, 만기일까지 90일 이내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이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판매중소기업과 구매기업 모두 30억원까지다.

기술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2.5~6.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팩토링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기술보증기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 신청 후 전국 62개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소상공인 “경기 회복 기대 크지 않다”

재료비 상승 등 이유

방역 조치가 크게 완화되면서 일상생활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모습을 점차 되찾아가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은 경기 회복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의 6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87.1로 나타났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100 미만이면 악화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지난 5월 전망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의 영향으로 101.0을 기록하면서 4년여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으나, 경기 전망은 한 달 새 확 달라졌다.

이번 6월 전망 BSI는 거리두기 해제 전에 조사한 3월 전망 BSI(83.3)와 유사한 수준이다.

6월 경기 악화를 전망한 이유로는 ‘경기침체 지속’ 응답이 1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부활동 증가로 고객 감소 예상’(18.7%), ‘원재료비 및 유가, 금리 상승’(13.0%) 등의 순이었다.

전통시장의 6월 전망 BSI도 83.1로 전월(101.0) 대비 17.9p(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5월 체감경기는 4월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5월 체감 BSI는 74.7로, 4월의 76.4보다 1.7p 떨어졌다. 전통시장의 5월 체감 BSI(68.8)는 4월(68.6)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1인 가구 소비 지출 1위는?

주거·수도·광열 등 월 30만원…전체의 20.5% 차지

올해 1분기 1인 가구의 소비 지출 가운데 주거 관련 비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가구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만큼 이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가구원이 1명인 가구가 주거·수도·광열에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30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소비 지출액(146만7000원) 가운데 2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년 전보다 8.2% 늘어나며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의류·신발 등 12개 소비 지출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거·수도·광열은 실제주거비, 주택 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연료비 등을 합한 품목이다.

반면 가구원이 2인 이상인 다인 가구가 주거·수도·광열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37만원으로 전체 소비 지출 가운데 12.2%를 차지했다.

1인 가구의 주거 관련 지출은 2인 이상 가구보다 적지만 지출 비중으로는 더 컸다.

처분가능소득 대비로 보면 1인 가구의 주거 관련 지출 비중은 13.9%, 2인 가구는 7.9%였다.

주거 관련 비용은 필수 소비로 꼽히는 만큼 소득이 적은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1분기 1인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16만원으로 2인 이상 가구(465만2000원)보다 249만2000원 적었다.

전체 소비 지출액으로는 2인 이상 가구가 302만6000원, 1인 가구가 146만7000원으로 155만9000원 차이가 났다. /연합뉴스

농합 전남본부 밑반찬 나눔 봉사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는 최근 함평군 대동면에서 고령 농업인 200가구에게 전할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를 했다. 〈전남농협 제공〉

2억~3억5000만원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 참여 제한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개정안을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까지 공사 예정 금액이 2억~3억5000만원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2억~3억원 미만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 예정 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내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을 위해 지난달 30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적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